

학교도서관 영역 교과목 운용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School Library Area in the LIS Education

김 종 성 (Jong-S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1. 사서교사의 직무와 교과내용 |
| 1. 연구의 의의 | 2.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구성 |
| 2. 연구 내용과 방법 | IV.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
| 3. 선행연구 개관 | 1. 교과교육론 영역의 운영 |
| II. 사서교사는 어떻게 양성되는가? | 2. 교육실습의 시행 |
| 1. 교직과정 이수 체계와 사서교사 양성 현황 | 3.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의 운영 |
| 2.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 V. 결론 |
| III. 사서교사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 |

초 록

이 연구는 사서교사 양성과정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직과정 이수자가 승인된 전국 31개 문헌정보학과를 대상으로 교과교육 영역과 학교도서관 관련 영역의 교과목 운용 실태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그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충실한 사서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과교육론 영역의 교과목을 원칙대로 운용하고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의 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어 : 학교도서관, 커리큘럼, 사서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resent status of the curriculum of school library area in LIS education. For this purpose, 31 curricula of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are analyzed. The writer concludes by suggesting three principles for a relevant operation of curriculum.

Key Words : school library, curriculum, school librarian

* 본 연구는 2003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신진)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kjs1010@kjs1010@kmu.ac.kr)

· 접수일 : 2004. 5. 30 · 최초심사일 : 2004. 6. 2 · 최종심사일 : 2004. 6. 11

I. 서론

1. 연구의 의의

근래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 개혁의 영향 속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중요성과 필수불가결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사서교사 임용이라는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기도 한다. 최근 3년간 전국의 공립학교에서는 123명의 사서교사가 신규 임용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 근거는 2003년부터 시행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3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의 학교에 각각 5천 만원씩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교수 학습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요컨대 수십 년간 학교도서관 현장을 외면해 온 교육정책이 현장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수십 년간 미동도 없던 사서교사의 수요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규모에 상관없이 사서교사 인력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서교사 양성과정의 충실도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시대와 현장이 요구하는 사서교사 인력이 제대로 양산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 동안 사서교사 인력 배치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그 교육 내용 또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밖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 속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의 운용 실태를 조사한다. 둘째, 현재의 교과목이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사서교사 양성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셋째, 시대와 현장이 요구하는 사서교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목의 체계와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문헌정보학과 학교도서관 현장에 직접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학교도서관 영역의 교육에서 새로운 체제와 내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확보하게 된다. 지금까지 학교도서관 영역에 대한 교육이 지극히 소홀히 되어 오거나 형식적인 교과목이 개설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과목 개설과 운용에 대한 유용한 안내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서교사에 대한 수요 발생과 학교

도서관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학교도서관 영역의 교육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시의적절한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사서교사 양성 과정에서 적실한 사서교사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유능하고 자질 있는 사서교사를 확보하게 해 줄 것이다. 이것은 다소 장기적인 견지에서 기대되는 효과로서 이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현재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사서교사의 능력과 자질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연구의 결과는 명실상부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의 종류와 운용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연구는 다양한 파생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학교도서관 영역의 교과목에 요구되는 교재 개발과 편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학교도서관 영역의 교과목에 활용될 교재나 지침서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의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영역 교과목의 규모와 내용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전국 문헌정보학과 의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의 편성 현황과 운용 방법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현행 교과목 운용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의 교과과정을 모두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32개의 4년제 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 중 공주대학교는 사범대학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 운용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31개 대학 문헌정보학과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각 학과의 홈페이지 상에 올라 있는 교과과정표를 통해 학교도서관 영역 교과

-
- 1) 학부 과정 이외에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과정과 실기교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는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운용과 내용에서 크게 달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기 어려우며 또한 연구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5권 제2호)

목의 편성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직접 각 학과의 조교에게 전화하여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 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각 대학별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 편성 현황과 교직과정 운용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이러한 교과목 운용 체계와 내용이 사서교사 양성에 적절한지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는 사서교사의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그것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의 교육 체계와 내용이 바람직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직무에 대하여 제안한 문헌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적이며 논증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셋째, 학교도서관 영역의 교과목 운용의 기본 원리와 체계 그리고 그 운용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한다. 연구의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현장에서 직접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서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와 체계에 따라 교직과정을 운용해야 하며 그 교과목의 종류와 내용은 어떠한지 탐색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선행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의 운용 실태와 그 정당성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제안한다.

3. 선행연구 개관

국내에서 학교도서관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교과과정을 연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그 동안 사서교사에 대한 수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학교도서관 영역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체 학문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사실도 하나의 설명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 특히 최근 교과과정 연구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도서관 환경의 변화, 그리고 학부제와 같은 대학 교육의 체제 변화와 관련하여 학문의 생존과 적응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의 연구가 눈에 띈다³⁾.

2) 정필모,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모형화를 위한 연구,” 도서관학보, 제4집(1983), pp.33-75 ; 정진식,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분석과 모형개발” 국회도서관보 제18호(1991), pp.3-63 ; 박혜경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비교 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1992) ; 김지선,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비교·분석,” 문헌정보학논집(충남대 문헌정보학과), 제7집(1997), pp.157-177 ; 김자후,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사회과학연구(광주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9호(1999), pp.303-335 ; 박일중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2000. 6), pp.197-221 ; 한복희,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 교과과정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학 제1권(1984), pp.43-73 ; 최성진, “정보학 교육의 개혁방안 연구,” 도서관학, 제16권(1989), pp. 111-176 ; 엄영애, “문헌정보학과의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12), pp.33-49.

이런 중에서도 최근 학교도서관 영역은 아니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특정 영역의 교과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몇 편 있다. 그 중에서도 엄영애의 두 연구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유용한 선행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엄영애는 장서개발 영역과 정보기술 영역을 대상으로 교과목을 분석하고 교과과정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⁴⁾.

장서개발 영역 교과과정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이 분야 교과목의 명칭과 내용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주로 교과목 명칭의 사용과 변경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나 요구를 반영하여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이며 당위성의 차원에서 제안을 한다. 이에 비해 정보기술 영역의 교과과정 연구에서는 시대적인 요구의 변화와 사회 환경 변화 등을 깊이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점검하고 탐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엄영애의 정보기술 영역에 대한 교과과정 연구를 통해 적실하고 유용한 연구 전략과 방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밖에 강미혜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주제서지 과목의 과제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⁵⁾. 그러나 이 연구는 주제서지 과목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긴 하지만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특정 교과목 영역에 대한 본격 연구로는 시사하는 바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소연은 연구방법론 교과목의 교육내용과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⁶⁾.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여 현황을 자세히 제시하여 주며 연구방법론 영역의 교육과정 운용의 방안을 제시한다.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라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특정 영역의 교육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기법과 논리는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만든 시사점과 참조를 제공하는 최근의 연구는 안인자의 연구들 수 있다⁷⁾. 안인자는 사서교사(사서)의 직무분석을 통해 사서교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해야

- 3) 김성수, “학부제 관련 문헌정보학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8집(1998), pp.355-383 ; 한복희, “학부제하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1998, 12), pp. 5-30 ; _____, “변화하는 도서관환경에 대비한 문헌정보학과와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1999, 6), pp.179-198 ; 구분영 “디지털 정보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정보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2000, 9), pp.93-108 ; 이명희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 : 국내외 인터넷 관련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3호 (2000), pp.72-87.
- 4) 엄영애, “장서개발의 교육 : 교과과정의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 (2000, 9), pp. 169-184 ; _____, “문헌정보학과와 정보기술 교과목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pp.415-430.
- 5) 강미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주제서지과목 개선방안 연구 : 법률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9), pp.49-68.
- 6) 박소연, “연구방법론 과목의 교육내용 및 현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2호(2002, 6), pp.259-276.
- 7) 안인자, “사서교사(사서)의 직무분석을 통한 양성기관의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

하는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학교도서관 영역의 교과목을 직무와 현장 사서교사의 의견에 기반하여 도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다. 현장의 직무와 관련한 교과목들을 어떻게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본 연구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교과과정 연구는 일반적으로 전체 교과목을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영역의 연구와 현장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개발되고 정착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내용은 이미 주요한 논점에서 비껴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II. 사서교사는 어떻게 양성되는가?

1. 교직과정 이수 체계와 사서교사 양성 현황

사서교사 자격은 비사법계 학과인 문헌정보학과에서 지정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획득하게 되는 교사 자격으로, 현재 2급 사서교사와 1급 사서교사로 구분된다. 4년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정해진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면 2급 사서교사가 되고, 학교에 임용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적정한 연수를 거쳐 1급 사서교사로 승급할 수 있다.

‘교원자격검정령시행령 제2 조에 따르면 교직과정 이수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학점 체계는 <표 1>과 같다⁸⁾. 이 기준은 모든 교과의 교직과정 이수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규정대로 하면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을 제1전공으로 하고 교직과정의 이수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는 양호교사와 사서교사의 경우 교과교육 영역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실습은 실무실습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의 학점은 14학점으로 축소된다.

<표 1> 교직과정 이수 체계

구분	교 직			전 공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	기본이수	일반 전공
영역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	기본이수	일반 전공
학점(과목)	14(7) 이상	4(2) 이상	2(1) 이상	14(5) 이상	기본이수과목, 교직 대체 과목을 합해서 42학점 이상
사서교사	이 수	제외 또는 전공 대체	실무실습 대체	이 수	

학회지, 제37권, 제3호(2003, 9), pp.79-95.

8)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7 호2002. 9. 10 개정.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사람은 2학년 재학 중에 학교장에게 교원자격이수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현재 전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승인된 인원은 <표 2>과 같다⁹⁾. 대학별로 승인 받은 시점과 입학 정원에 따라 교직과정 승인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3년 현재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총 인원은 553명으로 총 입학정원 1,208명의 약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대학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 현황(2003년 현재)

대학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대학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대학	입학 정원	승인 인원
계	1,208	553	대진대	41	4	이화여대	60	30
강남대	20	20	동덕여대	50	20	전남대	30	15
건국대	40	20	동의대	40	12	전북대	20	20
경기대	20	20	명지대	30	15	전주대	40	20
경북대	40	20	부산대	39	3	중부대	40	4
경성대	40	20	상명대	40	20	중앙대	30	15
계명대	50	25	서울여대	40	20	청주대	40	17
공주대	25	25	성균관대	40	20	충남대	30	15
대구대	40	20	숙명여대	40	20	한남대	40	12
대구가톨릭대	38	20	신라대	40	20	한성대	40	20
덕성여대	50	25	연세대	40	12	광주대	35	4

한편 실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사서자격을 취득하는 인원은 승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 4년제 대학의 사서교사 자격증 교부 현황을 보면 1999년에 230명, 2000년에 300명, 2001년에 370명, 2002년에 394명, 2003년에 336명으로 승인 인원 대비 훨씬 적은 인원만이 교직과정을 이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9) 자료: “2003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부 정책자료 307번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인용 2004. 5. 1]. http://www.moe.go.kr/bbs/board.php?bt=data&db=bbs1_8&limit=10&catmenu=m05_02_12&tn=moebbs&action=view&id=307&page=1

1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999-2003(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1999, -200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 사서교사가 양성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이며 2003년까지 총 5,419명의 사서교사를 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그럼 실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것은 사서교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양성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서교사가 충실하게 양성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문헌정보학과 중 공주대를 제외한 31개 학과의 교과교육 영역의 개설 여부와 교육실습 시행 여부를 조사하였고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 편성 현황을 조사하였다¹¹⁾.

우선 조사대상 학과 중 교과교육 영역인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교수법’을 개설하는 학과는 6개 학과로 전체 학과의 19%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실습을 시행하는 학과는 9개 학과로 30%에 이른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것은 교과교육 영역을 개설하지 않는 대신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연구법’ 등을 개설하여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도 2개 학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에서와 같이 교과교육론 개설 방법과 실습 방법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교과교육론을 개설하는 학과 중 교육실습을 시행하는 학과가 5개, 사서실습을 시행하는 학과가 1개로 나타난다. 교과교육론을 개설하지 않고 전공이나 기타과목으로 대체하는 학과의 경우 대부분 사서실습을 시행하지만 4개 학과는 교육실습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교과교육론 개설 방법과 실습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지만, 교과교육론으로 개설하는 학과는 대부분 교육실습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는 학과 중에서도 일부는 교육실습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분위기와 맞물려 소수이긴 하지만 사서교사 임용 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표 3> 교과교육론 및 실습 교과목 개설 형태별 현황

교과영역	교과교육론 개설 여부 및 방법			실습 방법	
	그대로 개설 (A)	대체과목 개설 (B)		교육 실습 (C)	사서 실습 (D)
교육학 과목으로 대체		전공 과목으로 대체			
학과수(%)	6(19%)	2(7%)	23(74%)	9(30%)	22(70%)
운영형태별	· A+C : 5(16%)		· B+C : 4(13%)		
학과수	· A+D : 1(3%)		· B+D : 21(68%)		

11) 전국 문헌정보학과의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 편성 현황은 2004년 5월 10일 현재 홈페이지상에 제시된 교과과정을 토대로 하였으며 교과교육 영역 개설 여부와 교육실습 시행 여부는 2004년 5월 24일 각 학과에 전화로 조사한 것이다. 실제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지만, 전공 교과목 개설이 불규칙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편성 현황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현황은 실제 개설 현황의 최대치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문헌정보학 교과목 중 학교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4가지 교과목으로 나타난다¹²⁾. 첫째는 학교도서관 운영 영역으로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 경영이나 미디어센터 운영 등의 이름으로 편성된 교과목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독서지도 영역으로 독서지도론이나 독서교육의 이름으로 편성되기도 한다. 셋째는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 영역으로 어린이 자료 또는 청소년 자료로 분리되어 편성되기도 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정보자료 등의 명칭으로 편성되기도 한다. 넷째는 교육매체의 활용과 관련한 영역으로 교육매체운영론이나 학습정보자료 실습 등의 명칭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4가지 코어 교과목의 편성 현황과 교과교육 과목 개설 현황을 도표화하면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표 4>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 편성 현황

교과목	편성 학과수	특기 사항	복수편성 학과 현황
학교도서관 운영(경영) 영역(A)	16(7)	· 괄호 안에 표기된 7개 학과에서는 관중별 경영 과목의 일부분으로 학교도서관을 다루는 경우임. · 한성대의 경우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론'으로 편성되어 있어 학교도서관 운영 영역에 포함.	· A+B+C+D: 0 · a+B+C+D: 1 · A+B+C+E: 1 · A+B+B: 1 · A+B+C: 3
독서지도 영역(B)	20	· 전남대의 경우 독서지도론과 독서지도실습' 두 과목을 편성해 두고 있음.	· A+B+D: 1 · A+C+C: 1 · A+B: 7
어린이·청소년 자료 영역(C)	7	· 연세대의 경우 아동자료 이용론', 청소년자료 이용론'으로 나누어 편성해 둠.	· a+B: 3 · B+C: 1
교육매체 영역(D)	2		· A: 3 · a: 3 · B: 2
기타(E)	1	· 건국대의 경우 '정보 리터러시' 과목을 편성하여 교직과정 이수자들이 수강하게 한다.	· 무편성: 4

*a: 학교도서관 운영(경영) 영역에서 관중별 경영 과목의 일부분으로 학교도서관을 포함하는 경우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 중 가장 많은 학과에서 편성한 것은 독서지도 영역으로 20개 학과(64%)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학교도서관 운영(경영) 영역이다. 학교도서관 운영(경영) 영역은 관중별 도서관 경영의 일부분으로 학교도서관을 다루는 7개 학과를 포함하면 모두 23개 학과(74%)에서 편성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교과목 이외에는 어린이

12) 이 연구에서는 이 교과목들을 다른 전공 교과목과 구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이라 칭한다

및 청소년 자료 영역 교과목이 7개 학과에서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매체 영역 교과목이 2개 학과에서 편성되었다.

복수 편성 현황을 보면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 편성 규모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 4개 영역을 온전하게 모두 편성한 학과는 한 곳도 없다. 관중별 경영 과목의 일부분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과목을 편성하거나 기타 과목을 포함하면 2개 학과에서 4개 영역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3개 과목을 편성한 학과는 모두 6개 학과인데 그 중 2개 학과에서는 같은 영역의 과목을 복수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 학과에서 3개 영역의 교과목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2개 영역의 교과목을 편성한 학과는 모두 11개 학과이고 1개 과목을 편성한 학과는 모두 8개 학과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교과목을 한 과목도 편성하지 않은 학과도 4개 학과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중 2개 학과는 교과교육론 영역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실습을 시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는 학과는 2개 학과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현황을 통해 전국의 문헌정보학과에서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 중 가장 보편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학교도서관 운영(경영) 과목과 독서지도 과목으로, 적어도 이 두 과목을 편성한 학과는 17개 학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이 두과목 중 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같이 편성한 2개 학과와 한 과목도 편성하지 않은 4개 학과 중 교과교육론을 개설하는 2개 학과를 포함하면 21개 학과는 최소한 두 과목 이상의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을 편성한 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역으로 보면 전국 문헌정보학과의 약 32%에 해당하는 10개 학과에서는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을 1과목 이하로 편성한 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과의 경우 교직원 과정 이수자에게 충실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에 사서교사 양성 과정으로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10개 학과 중 8개 학과는 사서교사 승인 인원이 20명 이상이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서교사가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부적절한 현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Ⅲ. 사서교사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1. 사서교사의 직무와 교과내용

특정 직업에 필요한 교육 내용은 그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서교사가 이수해야 하는 바람직한 교육 내용은 사서교사의 직무를 근거로 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안인자 등의 사서교사 직무분석과 그에 따른 교과과정 제안은 많은 참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¹³⁾. 이 자료를 중심으로 사서교사의 직무와 그에 따른 교과목의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은 사서교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도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안인자는 사서교사, 문헌정보학과 교수, 직무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 사서교사의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명세서를 작성한 후 현장의 사서교사로부터 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과목을 설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직무내용과 교과목을 연결하여 <표 5>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인자는 사서교사의 직무 분석에 기초하여 사서교사 교육에 필요한 16개의 교과목을 제안하였다. 도서관경영론, 학교도서관운영론, 아동도서관,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법(정보자료분류론, 자료목록법),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 교과교육론, 도서관협력수업론, 학교도서관이용지도론, 참고봉사론, 정보검색론, 인터넷활용, 서지학, 미디어 활용교육론(멀티미디어개론, 교수매체설계론), 디지털도서관(웹서버구축과 운영, 학술정보네트워크, 도서관자원공유론) 등의 교과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서교사의 직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교과목을 현장 사서교사들로부터 설문 조사하여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문헌정보학과 의 교과과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16개의 교과목을 교직과정 이수를 위해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16개 교과목 중 학교도서관과 무관하게 일반 전공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는 과목을 제외하더라도 6-7개의 과목이 남기 때문에 실제 교과과정에 모두 반영하기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직무분석의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디지털 정보관리 업무의 경우 그 작업 내용이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 업무나 자료관리 업무에 포함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같은 자료관련 업무는 자료관리 업무에, 시스템 운영과 네트워크 활용 업무는 도서관 운영·관리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도서관 변화 양상을 전통적인 학교도서관 업무 영역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료와 전산화 시스템을 포괄하는 범위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현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말하자면 디지털 자료의 개발이나 관리, 전산화 시스템의 운영이나 관리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3) 안인자 등,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직무분석(서울: 한국디지털포럼, 2003); 안인자 “사서교사(사서)의 직무분석을 통한 양성기관의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3, 9), pp.79-95.

도서관의 자료와 운영에 관련된 업무의 범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직무분석과 연계한 교과과정 제안은 사서교사 교육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좋은 참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5> 사서교사 직무와 필요 교과목(안인자, 2003)

책무	작업	개발될 교과목 또는 교과내용
학교도서관 운영·관리 업무	학교도서관 종합계획	도서관 경영론, 학교도서관 운영론
	학교도서관 예산	
	인적자원 관리	
	시설·설비 관리	
자료관리 업무	장서개발	도서관 경영론, 아동도서, 장서개발론
	자료조직	자료조직법, 정보자료분류론, 도서관자동화론, 자동화목록법
	전산화	자동화목록실습, 자료목록법
교육·정보서비스 업무	독서교육	독서지도론, 교과교육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도서관활용 협력수업론, 학교도서관경영론, 교과교육론
	학교도서관 이용·정보교육	학교/공공도서관 경영, 도서관협력수업, 학교도서관 이용지도론
	참고·정보서비스	학교/공공도서관 경영, 참고봉사론, 정보검색론, 인터넷활용, 서지학
	지역사회 봉사	학교/공공도서관 경영, 참고봉사론, 학교도서관 이용지도론
디지털 정보관리 업무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개발	멀티미디어개론, 미디어활용교육론, 교수매체설계론
	디지털 정보시스템 운영	웹서버구축과 운영, 디지털도서관
	네트워크에 의한 도서관 상호협력	웹서버구축과 운영, 학술정보네트워크, 도서관자원공유론

* '교과교육론'은 원자료에는 '실기교육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을 4년제 과정에 맞는 명칭으로 고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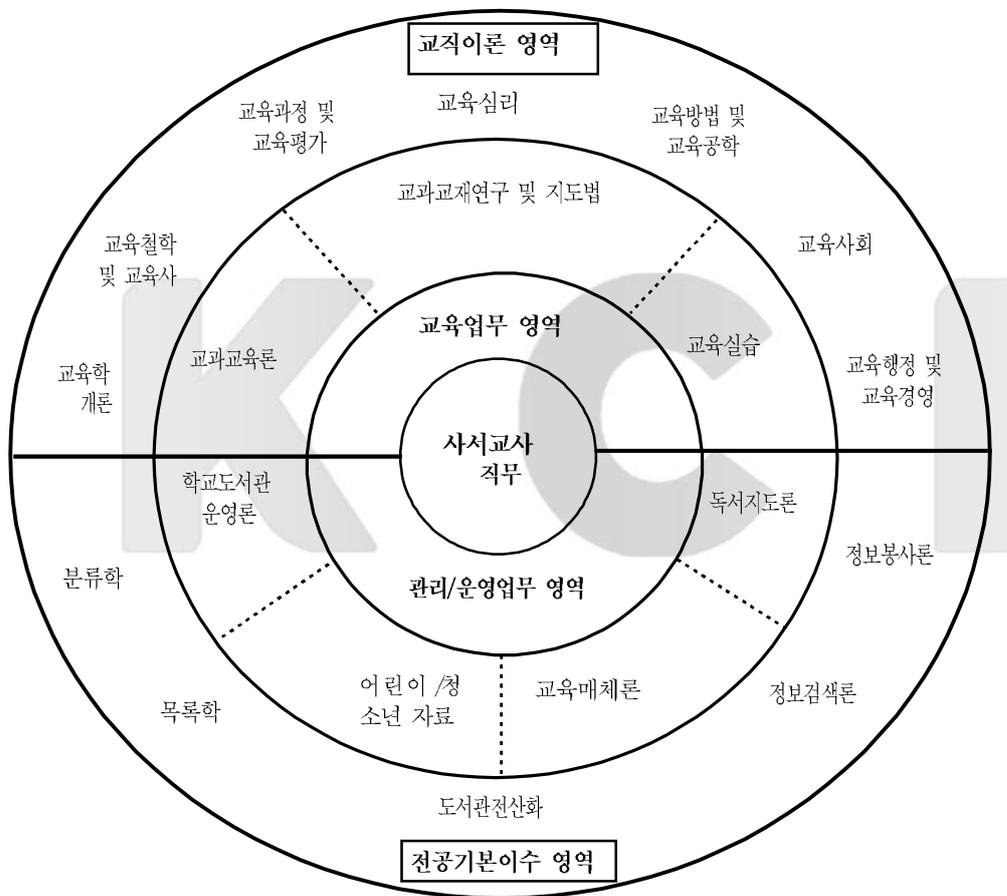
2.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구성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용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어떤 교과목으로 사서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감안해야 하는 요소를 우선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서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교과목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원리로 사서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과목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실적인 교과과정 이수 규정과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과 교과목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교과과정과 대학의 학점 이수 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셋째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전통적으로 교육되는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의 내용과 규모를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오랜 시간동안 문헌정보학과에서 사서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편성되고 개설되는 교과목의 내용과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서교사 양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교과목들의 구성 체계를 도식화하여 제안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구성 체계안

사서교사의 직무는 크게 교육업무 영역과 학교도서관 관리/운영업무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혼

히 사서교사의 직무를 교사로서의 업무, 사서로서의 업무, 관리자로서의 업무로 나누기도 하지만 크게 구분하여 교육업무와 사서업무로 단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직무 영역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연결하여 사서교사 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과목의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우선 교육업무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과목은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그리고 교육실습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교사를 양성하는 모든 전공분야의 교직과정에 필수로 들어 있는 교과목으로서 그 분야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관리/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으로 학교도서관 운영론, 독서지도론,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 교육매체론 등을 들 수 있다. 이 교과목들은 학교도서관이라는 특정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충족시켜 주는 핵심적인 전공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의 교과목들은 사서교사가 사서이면서 교사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교과 영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학 영역의 교직이론 교과목과 전공 영역의 기본이수과목이 추가되면 사서교사로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적절하게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직무의 요구와 교육 기관의 교과목 운영 관행, 그리고 관련 규정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교과목 운용체계라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기본 핵심 영역의 교과목의 운용에 부적절한 관행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교과교육론 영역이나 교육실습, 그리고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들이 교과 과정에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 간 사서교사에 대한 인력 수요가 없었다든지,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전공학점 이수 규정상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의 편성과 개설이 여의치 않다든지 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현실은 결과적으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양성하는 사서교사는 부실한 인력이라는 것이다. 적은 수이지만 사서교사 임용이 시행되는 지금 이런 문제는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서교사의 배치를 요구하기 전에 충실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체제와 관행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서교사를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정보학 교직 이수 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그 중요성에 반해 무척 부실하게 운영되는 교과교육론과 교육실습, 그리고 기본 핵심 교과목들을 원칙대로 편성하고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개설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림 1>에 제시된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구성 체계안에서 교직이론 영역과 전공 기본이수 영역의 교과목은 법규정으로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문제는 사서교사의 소양을 함양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는 교과교육 영역과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 영역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영역의 교과목들은 실제로 충분히 편성되지 않고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사서교사로서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결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과에서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하는 영역은 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역의 교과목 운용은 법규정이나 제도적인 조치 없이 학과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현재 문헌정보학과에서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개설의 원리와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려고 한다.

1. 교과교육론 영역의 운영

교과교육론 영역에 포함된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은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전공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현재 법규정으로는 양호교사와 사서교사의 경우에만 예외로 이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약 80%의 문헌정보학과에서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호교사와 사서교사의 경우 일반 교과교사와 달리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전제로 한 예외규정에 의해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도서관이 정부의 정책 과제로 채택되고 사서교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사서교사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 학교에서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독서지도, 또는 도서관 이용지도와 관련하여 사서교사의 수업 활동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서교사를 양호교사와 동일한 차원에서 수업 활동을 하지 않는 교직으로 인정하고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육 능력을 함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¹⁴⁾. 말하자

14) 최근 연구자가 면담한 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인식하여 사서교사에게 주당 18시간의 수업을 배당하였다고 한다. 사서교사로는 다소 과한 수업 시수일 수 있지만, 사서교사가 담당할 교사로 대접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일반 교과교사들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K초등학교 교장과의 대화, 2004. 5. 25, 13:00-14:00, K

면 사서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 교과교육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교과교육론 영역의 과목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과과정에 편성하여 개설하는 것은 또 다른 고려 요소들이 있어 쉬운 일은 아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19개 학과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을 2과목 이상 편성해 두고 있어 교과교육론 영역 교과목 2개를 편성하게 되면 학과의 교과과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연구자는 교과교육론 영역의 교과목과 학교도서관 관련 기본 교과목을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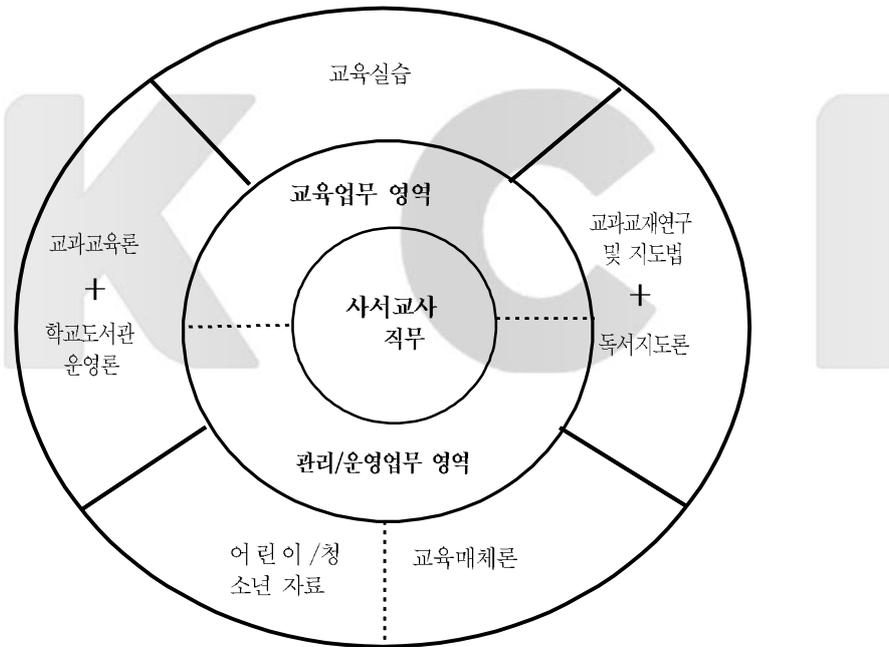
교과교육론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공부하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은 사서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방법적인 측면을 교육하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과교육론은 그 내용이 학교도서관 운영론과 중첩되는 면이 많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독서지도론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론이란 결국 사서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사서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공부인 교과교육론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독서지도론이란 독서지도의 원리와 방법을 익히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결국 사서교사가 가르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한 공부인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로 교과교육론 영역의 두 과목과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 영역의 두 과목을 통합해서 편성하고 설강하면 교육 내용을 충실히 확보하는 선에서 교과목의 중복 개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원리를 반영하여 교과교육론과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의 운영 원리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교과교육론과 학교도서관 운영론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독서지도론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과목 명칭을 정하는 것이 논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연구자는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의 교과목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타 전공 분야의 교직과정 이수 체계와 동등하게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관행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교육론이나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으로 설강할 경우 교과목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목 명칭으로 친숙한 학교도서관 운영론이나 독서지도론으로 편성하여 설강해도 무방

초등학교 교장실). 그런데 연구자가 면담한 일부 사서교사들 특히 신규임용자들은 대학에서 교과교육론과 관련한 교과목을 충분하게 이수하지 못하여 수업 맡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경우는 학교의 수업 배정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 사서교사가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사서교사직에 대한 학교 사회의 기대와 신뢰가 허물어져 결국은 사서교사의 배치를 가로막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다고 생각한다.

단, 어떤 명칭으로 통합하더라도 한 가지 원칙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과목들이 기본적으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핵심 교과목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서교사로서 필요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학교도서관 운영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도서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직 문화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학교도서관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서지도 교과목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독서지도에 대한 이론적인 점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의 형태로서 독서를 지도하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실제 독서지도를 위한 지도안을 설계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실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독서지도에만 국한하여 교과 내용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는 도서관 이용지도나 활용수업, 그리고 학교도서관 영역의 선택교과로 개발된 ‘정보와 도서관’ 교재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교재연구와 지도법을 연마하도록 하는 것이다¹⁵⁾.



<그림 2> 교과교육론과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 연계 운용안

15) 사서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선택 교과로 ‘정보와 도서관’이 있으며 각 학교급별로 이 교과를 위한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다. (김용철 등, (초등학교) 정보와 도서관 ; (중학교) 정보와 도서관; (고등학교) 정보와 도서관(서울 : 대한교과서, 2002)).

실제 연구자가 속한 학과에서는 이런 체제로 운영해 보았다. 기존의 학교도서관 운영론과 독서지도론 과목을 폐지하고 ‘문헌정보학 교과교육론’과 ‘문헌정보학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과목을 편성 개설한 것이다. 물론 ‘문헌정보학 교과교육론’ 과목은 기존의 학교도서관 운영론에서 다루던 내용을 포함하면서 교육적인 맥락을 강화하여 교과내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은 기존 독서지도론 과목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학교도서관의 모든 교육활동과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학적 인식과 이해를 심화하고 수업 설계와 진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어 교과를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⁶⁾.

2. 교육실습의 시행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의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시간의 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사서교사의 경우 사서실무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사서실무실습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 교육실습을 수강하도록 하는 학과가 늘어 <표 3>에서 보듯이 전체 문헌정보학과의 30% 정도가 교육실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70%나 되는 학과에서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면서 중요한 학교도서관 실습의 경험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사서교사 배치율이 높지 않고 지역에 따라 편중되어 있어 실습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학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경험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교육실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본다. 이것은 사서실무실습이 교육실습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사서교사는 사서이면서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사로서 역할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지자면 사서교사직의 내면적인 속성은 사서에 가

16) 이런 체제로 교육한 첫 학년이 올해 교육실습을 나갔는데, 학교에서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통해 교육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갖고 교수법에 대한 경험을 가진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 실습을 지도하는 담당교사들도 다른 대학에서 나온 교생들에 비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나 수업 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K고등학교 사서교사와의 면담, 2004. 5. 14, 13:30-15:00, K고등학교 도서관; K초등학교 사서교사와의 면담, 2004. 5. 25, 14:00-15:00, K초등학교 도서관; D고등학교 사서교사와의 면담, 2004. 5. 27, 18:00-19:00, D고등학교 도서관.

깝다고 할 수 있지만 외면적 속성은 교사로 표출된다. 사서교사의 일상적 직무 활동과 조직 생활은 교사로서의 자격과 신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일상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는 것은 그 직업에 진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 현장의 실재를 경험하는 것은 예비 사서교사의 소양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현장 실습을 해도 사서에게 필요한 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와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학교도서관만이 갖는 특징적인 점들을 경험하기는 불가능하다.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규모와 조직 특성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실재를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길은 학교도서관에서 생활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도서관 문화와는 다른 교직 사회의 생리와 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은 사서교사의 직무 적응력을 높이는 데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어떤 조직마다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그 문화들은 다소간의 차이를 가지기 마련이듯이 도서관과 학교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조직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직무 적응력도 높게 되고 효과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실습을 통해 교직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사서교사로 현장에 진출했을 때 직무적응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서교사직으로 진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교육실습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취업의 가능성을 떠나서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리에 입각해 볼 때 교육실습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충실한 인력을 양성해 두고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치에서도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실제 교육실습을 문헌정보학과에서 관장하는 교과목은 아니다. 교육실습 과목은 사범대학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학과의 부담은 사실 그다지 크지 않으며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사서실무실습 과목은 현행대로 개설하면 되는 것이다.

3.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의 운영

전통적으로 볼 때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은 학교도서관 운영론, 독서지도론,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 교육매체론 등을 들 수 있다. 이 영역의 교과목 운영은 교직과정 이수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과의 자율적인 운영 관행에 의존하게 된다. 그

그러나 실제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사서교사에게는 무척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이 교과목들을 편성하여 개설하는 데는 대학의 학점 이수 체계나 전공 교수 인력 확보의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 영역의 교과목들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영역의 교과목 중 학교도서관 운영론과 독서지도론은 사서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이 두 과목을 편성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 교과목들의 중요성은 확인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담당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과라면 최소 이 두 교과목은 예외 없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격 미달의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두 교과목은 그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으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그 과목들의 교육 방침과 목표를 반영하여 사서교사의 교육적 소양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두 교과목의 내용에 추가하여 사서교사로서 필요한 능력과 관련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에 대한 지식과 교육매체 활용과 관련한 능력이다. 사서교사로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두 영역의 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는 독서지도자로서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독서자료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이야기하며 후자는 학교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게 되는 다양한 교수 학습 매체의 운용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한다. 올바른 독서지도가 기능이나 기술로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독서자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양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에 대한 공부 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수업 현장에 다양한 교육 매체가 적용되고 있으며 도서관에도 일상적으로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사서교사가 교육매체의 제작과 활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영역의 교과목도 사서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¹⁷⁾.

17) 미국의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일반적인 교과목은 학교도서관 운영(Administration), 교육공학 및 시청각자료(Technology/Audiovisuals), 자료조직(Cataloging), 참고봉사(Reference),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Literature), 장서관리(Selection), 실습(Parcticum) 등으로 나타난다. 교육공학 및 시청각자료(Technology/Audiovisuals)는 교육매체의 제작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Literature)는 독서지도를 포괄하는 교과목이다. (Patsy H. Perritt, "Getting Certified in 50 States : The Latest Requirements for School Librarians," *School Library Journal*(June 2000), pp.50-72.)

V. 결 론

이상에서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과의 사서교사 양성 과정과 관련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의 운용 체계와 그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과 연구자가 제안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총 입학정원 1,208명 중 553명을 사서교사로 양성할 수 있는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과의 관련 교육 과정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부적절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서교사 양성에 필요한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충실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체 조사대상 학과의 약 80%는 교과과정 이수의 기본 영역인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약 70%에 이르는 학과에서는 아직도 교육실습을 사서실무실습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의 편성에서는 전체 학과의 55%에 해당하는 17개 학과에서만 학교도서관 운영론과 독서지도론 교과목을 동시에 편성해 두고 있으며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하로 편성한 학과가 1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학교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도 당당히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모순된 현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여 충실하게 사서교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운영의 원리와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가급적 교과교육론과 교육실습은 원칙대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이 교과목들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 중 두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두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운용하도록 한다. 학교도서관 운영론과 독서지도론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면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사서교사에게는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교과목은 모든 문헌정보학과에서 반드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에 관련한 교과목과 교육매체의 제작과 활용에 관한 교과목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네 교과목은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능력과 소양을 갖는데 기초적인 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교육론 영역과 학교도서관 코어 교과목을 통합 운용하여 교과목의 중복 편성을 줄이도록 한다. 그 내용과 범위에서 중복되고 유사한 교과교육론과 학교도서관 운영론을 하나로,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독서지도론을 다른 하나로 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교과

운용에 대한 효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교과목의 명칭은 가급적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과의 사정에 따라서 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교과목을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때 그 내용과 성격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통합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늘 교육 관료나 학교 경영자,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들을 대할 때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급선무라고 목청껏 외쳐댄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외치면서도 늘 자신이 없었다.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사서교사를 충실하게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문헌정보학과에서 양성해 낸 사서교사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기라도 하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그 동안의 현실적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얼버무리고 지금은 제대로 양성하고 있으니 염려 말라고 큰 소리 치고는 그 자리를 모면하곤 한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자신이 없다.

학교도서관이 변한다고 한다. 이 변화의 시점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더 엄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서교사를 배치하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변화의 국면을 현명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힘있게 사서교사를 배치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사서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을 갖춘 사서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과된 현실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